

'무용론' 인사청문제도 이번엔 바뀔까

제주도·도의회 상설정책협의회 열고 개선 논의 '인사청문회 제도 개선' 등 6개 의제 협력 합의

제주 행정시장, 정부부지사 등 논란을 산 인사청문 대상에 대한 임명 강행이 잇따르면서 제주도의회 인사청문회 '무용론'이 불거진 가운데, 민선8기 오영훈 도정 임기 내 제도 개선이 이뤄질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제주도와 제주도의회는 지난 8일 제주도청 본관 4층 탐라홀에서 상설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이어 정책공조 합의문을 발표하고, 민생비밀목 맞춤형 예산 등 6개 의제에 대해 공동 협력하기로 했다.

이날 논의된 의제 중에는 인사청문회 제도 개선 논의가 포함됐다.

현재 도의회 인사청문 대상은 양 행정시장을 비롯해 제주도 정부부지사, 감사위원장 뿐 아니라 제주 개발공사장·제주에너지공사장 등 지방공기업 수장 3명, 출자출연기관장인 제주국제컨벤션센터 대표이사, 제주연구원장 등 2명이다.

문제는 제주도의회로부터 '부적

격' 판단이 내려졌음에도 임명권을 쥔 제주도지사가 임명을 강행하는 사례가 빈번했다는 점이다. 도의회로부터 임명 동의를 받아야 하는 직책은 감사위원장이 유일하다.

양 행정시장은 '행정시장 인사청문회 실시'에 관한 지침'에 따라 임용 전 심사를, 공기업 등 5개 기관장은 '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장 인사청문회 실시'에 관한 지침'에 따라 임용 전 심사를 받도록 돼있다.

최근 강병삼, 이종우 양 행정시장 인선에서도 같은 문제가 불거졌다. 땅 투기와 농지법 위반 의혹이 잇따르며 농민단체로부터 고발 사태까지 벌어진 데다 제주도의회의 부적격 의견이 채택됐지만, 오 지사는 임명을 강행했다.

전임 원희룡 도정에서는 김태업 서귀포시장을 비롯해 김삼형 제주연구원장, 손정미 ICC제주 대표이사 등이 사실상 '임명 강행' 사례로 꼽혔다.



제주자치도와 제주자치도의회는 지난 8일 제주도청 탐라홀에서 상설정책협의회를 개최하고, 맞춤형 예산 등 6개 의제에 대해 공동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제주자치도 제공

이에 따라 후보자의 자질과 능력 검증이라는 인사청문회 본연의 목적이 퇴색되면서 무용론이 다시 불거졌다.

이번 상설정책협의회에서 도와 도의회는 인사청문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개선 공동 노력하기로 했다. 제주도는 검증 절차를 강화하고 도의회는 지역현안을 포함한 직무능력과 전문성 등을 검증하는 인사청문회를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그밖에 이날 다뤄진 안건은 ▷북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사회안전망 강화 ▷민생회복을 위한 내년도 국비예산 공동 대응 ▷제주 특별자치 강화를 위한 행정체제 개편 협력 ▷지방의회 독립성, 자율성 부여 등 선도적 제주의회상 구현 ▷4·3의 정의로운 해결을 위한 공동 노력 등이다.

제주도와 도의회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국비 확보단'도 설치하기로 했다. 강대호기자

문인관공에서

재난관리시스템 점검으로 침수 예방을

지난주 제11호 태풍 '힌남노'가 한반도를 관통하면서 전국에서 10명이 사망하고 2명이 실종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주택 등 사유시설 1만1934건, 도로·교량 등 공공시설 426건, 농작물 피해 3815ha 등으로 파악되고 있다.

북구 과정에서 피해 규모는 더 커질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제주의 경우 최대 근접거리가 60km로 북상해 한라산에 1000mm 이상의 폭우가 내렸고, 이로 인해 주택 및 차량 등 침수 5건, 어선전복 2건, 정전 1만 8000호 등 적지 않은 피해가 발생했다.

과거와 달리 지구 온난화 및 급속한 도시화로 인한 열섬현상

국지성 집중호우 가능성 ↑ 재난·재해 발생에 대비해 관리 4단계 정밀 구축 필요

등 기온 상승에 의한 자연재난의 대형화, 예측 불가능성의 증가로 피해규모 역시 대형화되고 있다. 이 때문에 현재 우수관로 등 기반시설에 대한 성능검토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체계적인 예방과 대비체계가 갖춰져야 하며 재난·재해 발생에 따른 관리 4단계(예방, 대비, 대응, 복구)도 보다 정밀하게 구축할 필요가 있다.

지난달 8일 서울 등작구 일대에 쏟아졌던 집중호우가 1시간 기준 141.5mm로 489년 빈도에 해당하는 수준이었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그 결과 8명의 인명피해를 냈고 지하철 침수, 붕괴, 차량 1만여대 침수 등 1300억원 이상의 피해가 발생했다. 전문가들은 이상기후가 빈번해짐에 따라 방재 기능강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번 제11호 태풍 '힌남노'가 북상하던 4일 오전 서귀포시 대



양 병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정지역의 경우 시간당 74.5mm의 폭우가 쏟아졌다. 이는 '전국홍수량 산정용역(2020년3월 환경부)' 고산기상관측소 자료에 따른 확률강우량 200년 빈도에 해당되는 강우이다. 당시 대정읍 상·하리리 전체 도로가 침수되는 피해가 발생했다.

침수피해는 국지성 집중호우가 주원인이지만 상류지역인 중산간지역의 개발로 인해 발생한 우수가 하류지역인 구도심지역의 우수관로 연결되며 처리용량을 초과해 더 큰 침수피해가 발생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우리나라에서는 1996년부터 개발행위에 대한 재해영향평가 제도를 도입해 시행하고 있지만, 일정 규모 이상의 개발사업만 평가를 받도록 되어 있다. 그 이하의 소규모 개발사업 및 건축허가에 대해서는 재해영향을 고려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 '힌남노' 태풍 때는 집중호우가 대정지역 중심으로 집중돼 침수피해가 발생했지만 향후 제주 전역에 이상기후로 인해 방재성능을 넘어서는 국지성 집중호우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중산간지역의 계속되는 개발사업과 건축허가로 인한 우수유출량이 늘어나는 만큼 과거 해안가 중심의 하류 주거밀집 지역가 필요로 하는 지적이다.

특히 이번 태풍으로 침수됐던 대정읍 도심지역의 피해 재발방지를 위해서는 도심지역 내 기존 관로 능력 검토용역이 최우선적으로 이뤄져야 할 것이다.

국회 국정감사 산자위·환노위 유치 총력도, 현안 절충 위해 위원회 제주 국감 유치 행보

제주특별자치도가 내달 4일부터 24일까지 실시되는 국정감사를 앞두고 일부 상임위 국감을 제주에서 실시하기 위해 국감 유치에 공을 들이고 있다.

국회 각 상임위원회는 이번주부터 올해 국정감사 계획서를 채택, 국감 준비에 나선다.

제주도가 제주 방문 국감을 희망하고 있는 상임위원회는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와 환경노동위원회다.

제주도는 산자위와 환노위 둘 중 최소 한 개 위원회는 제주에서 국감을 치를 수 있도록 절충 중이다.

두 위원회 모두 제주 관련 현안과 국비가 많은 위원회다. 국감이 끝나면 국회가 내년도 정부예산안

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는 만큼 국감을 제주 현안에 대한 국회의 협조와 공감대를 이끌어낼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산자위의 경우 제주 분산에너지특구, 전기차 등을 모두 다루고 있다. 환노위는 환경보전기여금, 도두하수처리장현대화사업, 노후하수관 문제 등의 소관 상임위다. 제주도의 내년도 국비 확보 신청액도 환노위 관련 예산이 가장 많다.

두 상임위 외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회도 제주에서 국감을 격년으로 실시하는 만큼 지난해 국감에 포함되지 않았던 제주도가 올해 현장 국감 지역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부미현기자 bu8385@ihalla.com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재인증 현장심사 13~16일 나흘 동안 제주도 전역에서 진행

제주특별자치도 세계유산본부는 13~16일 나흘 동안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재인증을 위한 현장심사가 제주도 전역에서 진행된다고 12일 밝혔다.

현장심사는 도지사 면담을 시작으로 제주도 세계지질공원 대표 명소인 성산일출봉, 수월봉, 산방산·용머리해안, 교래산다수마을 등을 중심으로 방문하고, 도 전역에서 지난 4년간의 지질공원 관리 상황을 점검한다.

또한 지오브랜드 파트너 업체를 방문하고 지역주민과 지질공원 해설사의 의견을 청취하는 방식으로 현장심사를 진행한다.

현장심사 중 1일자 일부 일정은 언론에 공개한다. 도지사 면담과

제주세계자연유산센터에서 진행되는 경과보고회, 센터 관람 및 성산일출봉 현장점검이다.

현장심사가 완료되면 심사자들의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올해 11월까지 세계지질공원 네트워크 이사회 심의를 거치고, 12월 개최 예정인 유네스코 총회에서 최종 발표된다. 심의결과 평가점수가 일정 기준 이상(그린카드)을 받아야 세계지질공원의 지위를 이어갈 수 있다.

제주도는 지난 2010년 국내 최초로 세계지질공원 인증을 받았으며, 2014년과 2018년 재인증 성공에 이어 이번엔 세 번째 재인증에 도전하고 있다.

고대호기자 bigroad@ihalla.com

2022년도 함덕중학교총동창회 한마음 체육대회

결실의 보람을 거두는 풍성한 계절을 맞이하여 동문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총동창회의 단합을 위하여 2022 한마음 체육대회를 개최하오니 가족들과 함께 참석하시어 행사를 함께 빛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음

■ 언 제 : 2022년 9월 25일(일) 오전 10시
 ■ 어디서 : 함덕중학교 운동장
 ※ 연락처 : 회 장 윤재철 (010-3698-9978)
 집행위원장 한재일 (010-5699-8704)
 사무국장 황정욱 (010-2693-8133)

함덕중학교총동창회 회장 윤재철

민속예술 청소년 온라인 문화한마당 동영상 공모

□ 공모대상 - 제주도내 거주하는 초·중·고등학교 개인 및 단체

□ 공모분야

| 연번 | 부 문 | 소요시간 | 내 용 |
|----|--------|--------|--------------------|
| 1 | 풍물(개인) | 3분이내 | 전통악기 |
| 2 | 풍물(단체) | 15분이내 | 전통악기·난타·관악 / 10인이상 |
| 3 | 민요 | 3분이내 | 전통민요 |
| 4 | 동화구연 | 3분이내 | 제주관련 신화·전설 |
| 5 | 시낭송 | 1~2분이내 | 詩 |

□ 접수기간 2022. 7. 1.(금) ~ 2022. 9. 30.(금)
 - 기한 내 도착분에 한함 ※ 접수확인 필수 (선착순 300명)
 - 제주특별자치도문화원연합회 홈페이지 참조 (https://kccjeju.or.kr)

□ 접수방법 및 제출서류
 - 모든 부문은 직접 모바일 영상으로 촬영하여 원본 및 참가신청서 접수
 - 동영상 원본 및 참가신청서(웹하드(ID: jj0302 / PW: jeju0302))

□ 참가자 및 시상특전
 - 참가자 전원에게 기념품 증정
 - 부문별 특별상(개인) 20명 시상
 - 부문별 특별상(단체) 6팀 시상
 - 부문별 특별상(단체(지도감사상)) 6명 시상
 - 결과표: 특별상에 한하여 개별통지(중복시 1인 1부문에 한해 시상)

□ 유의사항
 - 참가자의 초상권 등에 관한 모든 문제는 참가자의 책임(동의)으로 함
 - 응모된 원본은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성과표(영상모형)에 대한 지적재산권은 사업자에게 있으며 활용할 수 있음

□ 문의처 ☎ 064-752-0302

제주특별자치도문화원연합회

꽃자왈 워킹챌린지

"걸기만 해도 1000가 기부"

꽃자왈공유화재단 홈페이지

2022.9.17~10.1

장소: 교래자연휴양림, 제주꽃자왈도립공원
 대상: 꽃자왈을 지키고 싶은 누구나(500명)
 문의: 꽃자왈공유화재단 사무국(064-783-6047)

※자세한 사항은 꽃자왈공유화재단 홈페이지 또는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게시물 참조

참여방법

- 01 꽃자왈 포스트 또는 포토크리보와 함께 사진 촬영
- 02 SNS 사진 업로드 & 필수 해시태그 #제주특별자치도개방공사 #꽃자왈공유화재단
- 03 꽃자왈공유화재단 SNS에 참여완료 댓글 남기기 (참여완료 댓글은 9월 17일~10월 1일까지 작성 가능)
- 04 1개월 2인원 '제주특별자치도개방공사'가 기부 ※복합금: 1만원

| 주최 | 꽃자왈공유화재단 The Gulljuv Trust of Jeju
 | 후원 | Jeju 제주특별자치도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Development Co.